

열왕기하 23:8-9의 편집사 연구와 번역 제안

이은우*

1. 들어가는 말

“열왕기하”의 요시야 개혁본문(23:4-20)에서 두드러진 요소는 성전정화와 산당제거이다. 열왕기하 23:4-14에서 4절, 6-7절, 11-12절은 성전정화 관련 본문이고, 5절, 8-9절, 13-14절은 산당제거 관련 본문이다. 열왕기하 23:15-20에서 15절은 벨엘의 산당 파괴 본문이고, 16-18절은 벨엘에서의 요시야의 활동에 대한 진술 본문이고, 19-20절은 사마리아 전반에서의 산당 파괴에 대한 진술이다.¹⁾ 이런 구조에서 보면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의 개혁 진술을 지배하는 주제는 산당제거이다. 그중에서 요시야의 산당제거와 제의 중앙화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는 본문은 열왕기하 23:8-9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열왕기하 23:8-9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에 대한 사전적, 언어적 연구를 통해 이 본문의 편집사를 추적하고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오랫동안 이 본문 해석에 어려움을 제공한 8절의 שָׁרִיִּים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9절의 אֵם כִּי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문론적인 접근을 통한 새로운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본문의 번역과 본문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과 부교수. ewlee@puts.ac.kr. 이 논문은 202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M. A. O'Brie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253. 왕하 23:4-20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와 문서층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은우, “요시야의 성전 정화와 예레미야”, 『구약논단』 62 (2016), 70; H. D. Preuss,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ThR* 58 (1993) 246-250을 참고하라.

2. 열왕기하 23:8-9의 연구사

다수의 학자는 열왕기하 23:8-9가 신명기 12장 혹은 18장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²⁾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열왕기하 23:8-9의 제사장과 신명기 18:6-8의 레위인을 비교하며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열왕기하 23:9가 신명기 18:6-8의 규정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 홀셔(G. Hölscher)는 요시야의 개혁이 제의 중앙화에 집중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에 의하면 신명기에 제의 중앙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지만, 이는 포로기나 포로 이후에 기원한 것으로 요시야 개혁의 기반이 되지 않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열왕기하 23:8a, 9는 신명기 사가의 편집본문이다.⁴⁾ 다수의 학자는 이 본문이 요시야 때의 Dtr1 편집자에게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⁵⁾ 롱(B. O. Long)은 신명기 사가가 이 본문을 초기의 자료에서 수집해 요시야의 개혁 본문에 위치시켰다고 주장한다.⁶⁾ 프로이스(H. D. Preuss)는 이 부분이 신명기 12:1-7과 관계있다고 주장하고,⁷⁾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레위인의 권리에 관심을 보이는 신명기 18:6-8과 관계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본문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⁸⁾ 왜냐하면 신명기는 레위인이 야훼께서 선택하신 곳에 가서 중앙 성소를 섬길 때 그도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은 몫을 받게 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의 실제적 법령이 열왕기의 개혁 보도로 어느 정도 수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명기 18:6-8과 열왕기하 23:8-9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⁰⁾ 이들은 신명기의 레위인과 열왕기의 산당 제사장이 같은 부류라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신명기 18:6-8의 레위인과 열왕기하 23:8-9의 산당 제사장들은 다른 두 계

2)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eiden, New York, Köln: Brill, 1996), 157.

3)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J. S. Black and A. Menzies, trans. (Edinburgh: A. & C. Black, 1885), 121-151.

4) G. Hölscher, "Komposition und Ursprung des Deuteronomium", *ZAW* 40 (1922), 161-255.

5) 이은우, "요시야의 성전 정화와 예레미야", 72.

6) B. O. Long, *2 Kings*, FOTL X (Grand Rapids: Eerdmans, 1991), 278.

7) H. D. Preuss, *Deuteronomium*, EdF 164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2), 4-5.

8)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124.

9)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0.

10)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2nd ed. (London: SCM Press, 1970), 734-735.

11) G. W. Anderson, *The History and Religion of Israel*, NCB OT 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126.

층이므로 이 두 본문은 공통점이 없고, 따라서 그들 간의 어떤 단순한 등식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²⁾ 누르멜라(R. Nurmela)는 이런 입장에서 신명기 사가가 그 자신의 집단에서 유래한 법전을 위반하는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누르멜라는 열왕기하 23:8-9에 언급된 산당의 제사장들이 신명기 18:6-8에 언급된 레위인들과 동등한 관계로 여겨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¹³⁾ 열왕기하 23:8-9에 나타나는 제의 중앙화와 산당에 대한 조치와 산당 제사장의 처리에 대한 문제와 신명기 법전 사이의 불연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스(G. H. Jones)는 제의 중앙화를 요시야 개혁의 초기 진술로 간주하지 않고, 후대 개정의 결과로 간주한다.¹⁴⁾ 로핑크(N. F. Lohfink)는 신명기 18:6-8은 아직 요시야 시대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열왕기하 23:9의 예루살렘 제사장직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법전의 관련 진술보다 더 초기 진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¹⁵⁾ 로핑크와 브라울릭(G. Braulik)은 신명기 18:6-8의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신명기 16:18-18:22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법률은 포로기나 포로 이후의 편집에서 왔다고 주장한다.¹⁶⁾ 아이니켈(E. Eynikel)은 이 두 구절에 나타나는 표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열왕기하 23:8a는 요시야 시대의 본문으로, 8b절은 후대의 본문으로 구분하지만, 9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¹⁷⁾ 바릭(W. B. Barrick)은 열왕기하 23:8a, 9는 요시야 개혁 진술의 원래 판본에 속하고,¹⁸⁾ 8b절은 포로 이후의 편집적 첨가라고 주장한다.¹⁹⁾ 기존의 연구는 이 짧은 두 구절에 나타나는 사전적, 언어적, 역

12) G.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 W. T. Dicken, trans. (New York: McGraw-Hill, 1966), 122; E. Würthwein, "Die Josianische Reform und das Deuteronomium",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73 (1976), 417.

13) R. Nurmela, *The Levites: Their Emergence as a Second-Class Priesthood*, *South Florida Studies in the History of Judaism* 193 (Atlanta: Scholars Press, 1998), 69.

14) G. H. Jones, *1 and 2 Kings*, 2 vols.,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4), 617.

15) N. F. Lohfink, *Great Themes from the Old Testament*, R. Walls, trans. (Chicago: Franciscan Herald, 1982), 68.

16) N. F. Lohfink, "Die Sicherung der Wirksamkeit des Gotteswortes durch das Prinzip der Schriftlichkeit der Tora und durch das Prinzip der Gewaltenteilung nach den Ämtergesetzen des Buches Deuteronomium (Dt 16,18-18,22)", H. Wolter, ed., *Testimonium Veritati: philosophische und theologische Studien zu kirchlichen Fragen der Gegenwart*, FTS 7, Frankfurt am Main: Josef Knecht, 143-155 (reprinted in *idem, Studien Zum Deuteronomium und zur 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I*, SBAB 8, [Stuttgart: Katolisches Bibelwerk, 1990], 305-323).

17)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5.

18) W. B. Barrick,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VTSup. 88 (Leiden: Brill, 2002), 183.

19) *Ibid.*, 80.

사적 특징을 명확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본문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23:8-9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3. 열왕기하 23:8의 번역 제안과 편집사 연구

3.1. 8aα절: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을 데려왔고’ (וּיָבֵא אֶת־כָּל־הַכֹּהֲנִים מֵעָרֵי יְהוּדָה)

וּיָבֵא를 『개역개정』에서는 주어 없이 “불러오고”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그는 … 불러들이고”로 번역한다. 『새번역』에서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첨가해 “그는 …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로 번역한다. 이는 다소 지나친 의역이다. LXX에서는 이를 ἀνήγαγεν으로 번역하는데 ‘그는 데려왔다’라는 의미이고, VUL에서는 이 단어를 congregavitque로 번역하는데 이는 ‘그는 모았다’라는 의미이다. וּיָבֵא는 בּוֹא 동사의 와우 연속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형태로 ‘그는 … 데려왔고’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בּוֹא 동사는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는 יָבֵא(4절, 6절)와 שָׁבַת(5절)과 שָׁלַךְ(6절) 동사처럼 개혁 활동의 시작 부분에 사용된다.²⁰⁾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사역하던 유다의 각 성읍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개역개정』에서는 יהוּדָה מֵעָרֵי를 “유다 각 성읍에서”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로, 『새번역』에서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로 번역한다. LXX에서는 이를 ἐκ πόλεων Ιουδα로, VUL에서는 de civitatibus Iuda로 번역하는데 이는 ‘유다의 성읍들에서’라는 의미이다. MT, LXX에 모두 ‘모든’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다의 성읍들에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수의 주석가들은 열왕기하 23:8-9가 신명기 12장과 18장의 적용과 관계있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외스트라이허(T. Oestreicher)는 신명기 어디에도 지방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본문이 신명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²²⁾ 브롱거스

20)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1.

21) Ibid.

22) T. Oestreicher, *Das Deuteronomische Grundgesetz*, BFChTh 27:4 (Gütersloh, 1923), 44.

(H.A. Brongers)는 지방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은 제의를 정화하는 동안 소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예배 장소의 단일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²³⁾ 그러나 제의정화를 위해 모든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필요는 없다.²⁴⁾ 슈피커만(H. Spieckermann)은 제의의 정화는 예배장소의 단일화를 통해서만 보증될 수 있는데, 이는 야훼 유일성의 신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야훼의 유일성과 제의 장소의 단일화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요시야에 의해 제사장들의 중앙화를 통해 급진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 슈피커만은 23:8a를 역사적 사건의 실제 보도로 보고, 이 부분을 대본(Vorlage)으로 간주한다.²⁶⁾ 열왕기하 23:8a는 23:4-9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개혁 내용의 문맥에 속하는 제의 중앙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신명기 12장, 18장과 관련된 요시야 시대의 중앙 집권화 시도를 반영하는 신명기적 편집 본문이다.²⁷⁾

3.2. 8aβ절: ‘산당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고’(וִטְמָא אֶת־הַבְּמֹת)

요시야는 유다 모든 성읍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후 ‘산당들을 제의적으로 더럽게 했다’(וִטְמָא אֶת־הַבְּמֹת). וִטְמָא의 칼 형태는 주로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혹은 ‘더럽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열왕기에서는 이 동사가 주로 피엘형으로 나타난다. 피엘형의 의미는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럽게 하다, 부정하게 하다, 신성을 모독하다’이다. 와우 연속 피엘 미완료형인 וִטְמָא를 『개역개정』에서는 “더럽게 하고”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로 번역하고, 『새번역』에서는 “부정하게 하였다”로 번역한다. LXX에서는 이 단어를 ἐμίαιεν으로 번역하고, VUL에서는 contaminavit로 번역하는데 모두 ‘그가 더럽게 했다’라는 의미이다. KJV, ASV, JPS, NRS에서는 모두 이 단어를 ‘defiled’로 번역한다.

23) H. A. Brongers, *II Koningen*, POT (Nijkerk: Callenbach, 1970), 218.

24)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2.

25)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RLANT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95.

26)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2.

27) *Ibid.*, 232. 아이니켈(E. Eynikel)은 이 부분을 신명기 사가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고, 요시야 통치 시대 직후에 활동한 Dtr1의 편집 본문으로 간주한다.

역대기의 요시야 개혁 진술에서는 **טָמַא**의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정화하다’의 의미가 있는 **טָהַר** 동사를 사용한다. 역대하 34:3에서는 **טָהַר** 동사가 산당들과 각종 우상을 제거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각종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산당들과 각종 우상을) 치워 없애버리기 시작하였다”로 번역하고, 『새번역』에서는 “(산당들과 각종 우상을) 없애고, … 깨끗하게 하였다”로 번역한다. 역대하 34:5에서는 **טָהַר** 동사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정결하게 하였으며”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부정을 벗겼다”로, 『새번역』에서는 “깨끗하게 하였다”로 번역한다. 열왕기하 23장에 사용된 **טָמַא** 동사는 ‘불법적인 제의나 관련된 장소를 더럽게 하여 그 기능을 못하게 했다’는 상반되는 의미가 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טָמַא** 동사가 8절, 10절, 13절, 16절에 나타나는데 요시야가 신명기 법전의 우상제거 명령을 실행하며 우상과 관련된 곳을 제의적으로 더럽게 하여 그 기능을 못하게 할 때 사용된다.²⁸⁾ 따라서 필자는 **טָמַא**를 단순히 일반적 의미인 ‘더럽게 하고’로 번역하기보다는 이런 특징을 반영해 ‘제의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만들고’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טָמַא 동사는 레위기, 민수기, 에스겔의 제사장 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²⁹⁾ 열왕기하 23:8에서는 **טָמַא** 동사가 **בְּמוֹת**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아래 10절에서는 **טָמַא** 동사가 도벳을 더럽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사용된다.³⁰⁾ 열왕기하 23:8처럼 예레미야의 세 본문(7:30-8:3; 19:1-13; 32:29b-35)에도 **טָמַא** 동사와 **בְּמוֹת**이 함께 나타난다.³¹⁾ 예레미야 7:30; 19:13; 32:34에는 **טָמַא** 동사가 나타난다. 예레미야 7:31에는 ‘도벳 산당’(וּבְנוֹ בְּמוֹת הַתְּפֹת)이 나타나고, 예레미야 19:5; 32:35에는 ‘바알 산당’이 나타난다. **טָמַא** 동사를 불법적인 **בְּמוֹת**을 더럽게 하는 문맥에서 사용하는 열왕기하 23:8은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제시하는 예레미야의 세 본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²⁾ 이는 이 동사의 사용과 관련해 열왕기하 23:8aβ가 요시야의 시대보다 후대라는 것을 보

28) Ibid.

29) Ibid., 233.

30) 이은우, “열왕기하 23장 10절의 역사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1:5 (2019), 37-59.

31) Ibid., 42-43.

32) 이를 위해서는 W. B. Barrick,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81-103과 이은우, “열왕기하 23장 10절의 역사에 대한 연구”, 41-45를 참고하라.

여준다. 제사장 문서나 예언 문학에서 이 동사는 우상 제단이나 산당을 부정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³³⁾ 이는 자신의 시대에 행해지던 지방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와 불법적 제의의 문제를 인식한 포로기의 신명기적인 편집자가 이들의 철저한 근절을 강조하기 위해 편집적으로 첨가한 어구로 보인다.³⁴⁾

3.3. 8_{ay}절: ‘제사장들이 불법적으로 제사하던’(אשר קטרו-ושמה הכהנים)

『개역개정』에서 “분향하던”으로 번역된 קטר을 『새번역』에서는 “제사하던”으로, 『공동개정』에서는 “제사 드리던”으로, KJV와 ASV에서는 “had burned incense”로, NRS와 ESV는 “had made offerings”로, GNB는 “had offered sacrifices”로 번역한다. LXX에서는 이 단어를 ‘분향하던’의 의미가 있는 ἐθυμίασσαν으로 번역하고, VUL에서는 ‘제사하던’의 의미가 있는 sacrificabant로 번역한다. 오경에서는 이 동사가 주로 합법적인 희생 제사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출 29; 30; 40; 레 1-9; 16; 17).³⁵⁾ 그러나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 동사가 백성이나 왕이 야훼께 불법적인 희생 제사를 지내거나(왕상 22:43[44]; 왕하 12:3[4]; 14:4; 15:4, 35; 16:4; 17:11; 18:4),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왕하 22:17), 제사장들이 불법적인 산당에서 야훼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다(왕하 23:5, 8).³⁶⁾ 따라서 필자는 이 동사를 일반적인 의미의 ‘분향하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명기 역사서 안에서의 이 동사의 용례를 고려해 ‘불법적으로 제사하던’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슈피커만은 קטר 동사가 피엘로 나타나는 열왕기의 이 본문들을 포로기의 신명기 사가의 편집으로 보았다.³⁷⁾ 구약에서 קטר와 כהנים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은 열왕기하 23:8이 유일한데 이 또한 포로기의 신명기적인 편집으로 볼 수 있다.³⁸⁾

33) 이은우, “열왕기하 23장 10절의 역사에 대한 연구”, 42; A. Schoors, *Jesaja: uit de grondtekst vertaald en uitgelegd*, BOT (Roermond: J. J. Romen & Zonen, 1972), 182.

34) H. Hollenstein, “Literar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Reformmassnahmen Josiah 2 Kön. XXIII 4ff”, *VT* 27 (1977), 332.

35) R. D. Nelson,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8 (Sheffield: JSOT Press, 1981), 57-58.

36)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21.

37)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86.

38)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4.

3.4. 8aδ절: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מגבע ער-באר שבט)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 본문에만 나타난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8-9km 지점으로 베냐민 고원이라 불리는 동쪽 끝에 자리한 곳이다. 다수의 학자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남유다 대략의 경계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³⁹⁾ 이것은 통일 왕국 대략의 경계를 나타내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의 변형이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통일된 다윗 왕국의 회복이 국가적 열망의 초점이었던 후대에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상”에 나타나므로(삿 20:1; 삼상 3:20; 삼하 3:10; 17:11; 24:2, 15; 왕상 4:25[5:5]; 대상 21:2),⁴¹⁾ 그 변형인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그보다는 후대의 표현으로 보인다.⁴²⁾ 이는 요시야의 개혁이 남유다 지역에 한정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남유다 중심의 개혁과 회복을 강조한 포로 이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편집적 첨가 어구로 보인다.

3.5. 8bα절: ‘털투성이의 폭풍우 신의 산당을 헐었다’(נתן את-במות השערים)

동사 נתן과 במות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본문은 열왕기하 23:8, 15; 역대하 31:1; 33:3 본문뿐이다.⁴³⁾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의 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의 개혁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슈피커만은 여기서 “역대하”의 두 본문에 주목하며 이것이 후대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요시야의 개혁을 묘사하기 위해 ‘제의적으로 부정한 곳을 만들다’라는 동사 טמא의 와우 연속 미완료가 사용된 8aβ절에 연결된 와우 연속 완료형의 8bα절은 오랫동안 편집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⁴⁵⁾ 일부 학자들은

39) Ibid., 235.

40) H. D. Hoffmann, *Reform und Reformen: Untersuchungen zu einem Grundthema der Deuteronomistischen Geshichtsschreibung*, 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66 (Zürich: Theol. Verl., 1980), 241-242.

41) J. Böhmer, “Wo lag Ramath-Gilead?”, *ZAW* 29 (1909), 129-134.

42) H. D. Hoffmann, *Reform und Reformen: Untersuchungen zu einem Grundthema der Deuteronomistischen Geshichtsschreibung*, 241-242.

43)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6.

44)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86;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6.

45) H. Gressmann, “Josia und das Deuteronomium”, *ZAW* 42 (1924), 327-328.

8b절이 더 오랜 연대기 자료에서 왔다고 주장한다.⁴⁶⁾ 넬슨(R. D. Nelson)은 8b절을 연대기적 표현이라 주장하며 열왕기에 나타나는 몇몇 베카탈(w^oqatal) 형태(왕하 18:4; 23:8, 10, 12)는 왕궁 공식 기록의 섬세한 문체에서 온 초기 전승이라고 주장한다.⁴⁷⁾ 그러나 다수의 학자는 8b절을 후대의 자료로 돌린다.⁴⁸⁾ 시제상으로 앞의 문맥과 단절되는 베카탈(w^oqatal) 형태로 구성된 어구상의 구조와 8b절의 불확실한 구성을 볼 때 이 부분은 2차 자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산다(A. Šanda)는 후대 편집 활동을 보여주는 베카탈(w^oqatal) 형태는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⁵⁰⁾ 아람어의 영향은 이 표현이 포로 이후 시대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בְּמִנְתֵּי הַשְּׁעָרִים은 구약에 한 번(hapax legomena)만 나타나는 표현이다.⁵¹⁾ 『개역개정』은 이를 “성문의 산당들”로 번역하고, 『새번역』은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염소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으로 번역한다. KJV와 ASV와 ESV와 NRS에서는 이를 “the high places of the gates”로 번역하지만, GNB에서는 “the altars dedicated to the goat demons near the gate”로 번역한다. 고대 역본들에는 בְּמִנְתֵּי에 대한 다양한 다른 표현이 나타난다. TAR 자음 본문에서는 bmt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수로도 복수로도 이해될 수 있다. LXX^B에는 בְּמִנְתֵּי הַשְּׁעָרִים이 τὸν οἶκον τῶν πύλων으로, LXX^L에는 τὸν οἶκον τῶν ὑψηλῶν으로 나타난다. VUL는 이를 *aras portarum*으로 번역한다.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는 MT의 הַשְּׁעָרִי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בְּמִנְתֵּי הַשְּׁעָרִים이 ‘성문의 산당들’이라면 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다수의 학자는 이 단어의 모음을 הַשְּׁעָרִים으로 다시 짚을 것을 제안한다.⁵²⁾ 모음을 다시 짚은 הַשְּׁעָרִים과 관련된 본문은 레위기 17:7; 역대하 11:15; 이사야 13:21; 34:14이다. 여기서 שְׁעָרִים은 숫염소 혹은 숫염소 모습을 한 악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⁵³⁾ 둠(H. Duhm)

46) C. Hardmeier, “König Joschija in der Klimax des DtrG (2Reg 22f.) und das vordtr Dokument einer Kulturreform am Residenzort”, R. Lux, ed., *Erzählte Geschichte: Beiträge zur narrativen Kultur im alten Israel*, Biblisch-Theologische Studien 4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124-125, 138-139.

47) R. D. Nelson,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80-81.

48) I. Benzinger, *Die Bücher der Könige*, KHCAT 9 (Freiburg, Leipzig and Tübingen: Mohr Siebeck, 1899), 189; B. Stade and F. Schwally, *The Book of Kings: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Text*, SBOT 9 (Leipzig: J. C. Hinrichs, 1904), 55.

49) E. Würthwein, “Die Josianische Reform und das Deuteronomium”, 415.

50) A. Šanda, *Die Bücher der Könige: 2. Halbband. Das Zweite Buch der Könige*, Exegetische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9 (Münster: Aschendorff, 1912), 362.

51)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6.

52) I. Benzinger, *Die Bücher der Könige*, 193.

53) HALOT 2, 1341; BDB, 972.

역시 이 단어를 숫염소 모양의 ‘사티로스’나 호색한으로 이해한다.⁵⁴⁾ 일부는 שְׁטֵרִים을 문지기로 이해하며 בְּמִוֹת הַשְּׁטֵרִים을 ‘문의 정령의 성소’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⁵⁵⁾ 그러나 스나이스(N. H. Snaith)는 이런 이해가 그리스와 로마의 이해를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 도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시도라고 주장한다.⁵⁶⁾ 그는 이사야 13:21; 34:14에서 שְׁטֵרִים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염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본문은 모두 올빼미, 타조, 숫염소, 하이에나, 자칼, 들짐승, 여자 악령(Lilith), 뱀, 독수리가 거하는 폐허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염소가 부정적인 함축을 가진 예가 없다. 염소들은 야훼께 바쳐진 동물에 속했다.⁵⁷⁾ 이사야 34:14는 שְׁטֵרִים 이외에, 메소포타미아의 폭풍우의 신인 ‘여자악령’(Lilith)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전설적인 동물들이 거주하는 사막의 모습에서 שְׁטֵרִים은 신화적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⁵⁸⁾ 존스는 이를 사막의 악마로 이해한다.⁵⁹⁾ 신명기 32:2에서 שְׁטֵרִים은 ‘폭우’를 의미한다. 스나이스는 여기에서 ‘비의 신’, ‘풍요의 신’, ‘폭풍의 바알’이라는 의미를 추론한다. 이것은 ‘여자 악령’(Lilith)에서 유추한 신화적인 이미지와도 연결된다.⁶⁰⁾ 뚝이 שְׁטֵרִים을 ‘사티로스’로 이해한 것은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 갖는 ‘털투성이의’ 의미에 근거한 것이다.⁶¹⁾ 따라서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שְׁטֵרִים은 거주할 수 없는 곳에 살며 사람을 위협하는 ‘털투성이의 폭풍우의 신’으로 번역할 수 있다. 시리아 역본에서는 שְׁטֵרִים을 š'd'로 번역하는데 이는 아카드어 šedu와 어원상으로 일치한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문을 지키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포로 경험 이후에 유다에서 근동 종교의 영향으로 이 폭풍우 신의 위협을 피하고 이 신을 달래기 위해 성문에 이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산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³⁾ שְׁטֵרִים은 “레위기”와 “역대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포로 이후의 본문에서 사용되는

54) H. Duhm, *Die bösen Geister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1904), 47.

55)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730.

56) N. H. Snaith, “The Meaning of שְׁטֵרִים”, *VT* 25 (1975), 115-118.

57)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7.

58) *Ibid.*, 237.

59) G. H. Jones, *I and 2 Kings*, 621.

60)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8.

61) H. Duhm, *Die bösen Geister im Alten Testament*, 47;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8.

62)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100.

63)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8.

표현으로 열왕기하 23:8b가 이 시기와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⁶⁴⁾

3.6. 8bβ절: ‘성문 왼쪽에 있는 성주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에 있는’ (אשר פתח שער יהושע שר-העיר אשר-על-שמאול איש בשער העיר)

“대문 어귀”(פתח שער)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독특한 표현인데 가장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19:11에 나타나는 פתח הבית 혹은 출애굽기 26:36에 나타나는 פתח האהל이라는 표현이다.⁶⁵⁾ 하지만 이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שר-העיר”를 『개역개정』에서는 “그 성읍의 지도자”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에서는 “성주”로, 『새번역』에서는 “이 성읍 성주”로 번역한다. שר는 주로 ‘우두머리나 지도자’, ‘통치자’, ‘주인’을 의미하므로 “성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שר-העיר는 사사기 9:30; 열왕기상 22:26//역대하 18:25; 열왕기하 23:8; 역대하 29:20; 34:8에 나타난다. 이 호칭은 7세기 아시리아 관화의 봉인에서도 발견된다. 성문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지어진 것은 구약에서 독특한 것이다. 호프만(H. D. Hoffmann)은 이는 지리적 묘사에 역사적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Dtr에 의해 창조된 가공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⁶⁶⁾ 뷔르트바인(E. Würthwein)도 이름의 언급은 간접 증거로 이름이 없다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어떤 보고에 더 큰 신빙성을 준다고 주장한다.⁶⁷⁾ 아이니켈은 이 표현이 요시야에게서 유래한 것은 아니고, 후대의 편집자가 그의 시대에 알려진 정보를 이 본문에 첨가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8절의 맨 마지막 어구인 ‘성문 왼쪽에 있는’(אשר-על-שמאול איש בשער העיר)이라는 관계절은 산당의 위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수식어구이다. 야딘(Y. Yadin)과 홀렌슈타인(H. Hollenstein)은 산당의 위치가 이중으로 수식된 독특한 방식에 주목했다: 산당은 성주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의 왼쪽에 있었다고 언급된다.⁶⁹⁾ 산당의 정확한 위치를 묘사하려는 두드러진 관심은 첫 독자층이 제의 설치물의 위치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홀렌슈타인과 존스가 주장하듯이 8b절의 성문의 특

64) Ibid.

65) Ibid.

66) Ibid., 239.

67) E. Würthwein, “Die Josianische Reform und das Deuteronomium”, 403.

68)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39-240.

69) H. Hollenstein, “Literar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Reformmassnahmen Josiah 2 Kön. XXIII 4ff”, 334-335.

징에 대한 언급을 요시야의 개혁과 연결하려는 기원론에 근거한 후대의 첨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⁷⁰⁾ כִּשְׁמֵן 是 배분의 의미(distributive sense)로 쓰이는 표현으로 구약성경의 여러 본문(신 24:16; 삿 7:22; 삼상 14:20; 삼하 2:16; 왕하 9:21; 사 3:5; 14:18; 19:2; 렘 9:5[4]; 11:8; 37:10; 겔 7:13, 16; 8:11, 12; 율 2:7; 미 4:5; 학 2:22)에 나타나지만, 열왕기하 23:8과 유사하게 사용된 용례는 찾을 수 없다.⁷¹⁾ 아이니켈은 여기에 나타나는 성읍이 예루살렘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야딘은 수도의 성문을 지방의 성주 이름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⁷²⁾ 아직 예루살렘에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된 문이 존재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의 성주였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⁷³⁾ 야딘은 아하로니(Y. Aharoni)가 발견한 브엘세바와 거기에 있었던 제의 설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⁷⁴⁾ CEV는 성문의 산당을 “the shrine at Beersheba”라고 번역해 그 위치를 브엘세바로 명확히 한다.

4. 열왕기하 23:9의 번역 제안과 편집사 연구

4.1. 9a절: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한다’(יהוה בירושלם)

‘제단에 올라가다’(עלה אל-מזבח)라는 표현은 구약에 두 번 나타난다(레 2:12; 왕하 23:9). 이 중에 레위기는 완전히 다른 문맥으로 야훼의 제단에 드러서는 안 되는 희생제사에 대해 언급한다. ‘제단’(מזבח)이란 단어 없이 ‘-에 올라가다’(עלה אל)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48개의 용례 중에 열왕기하 23:9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 나타나는 본문은 신명기 17:8(וקמת ועלית אל-המקום)로 제의 장소로 올라간다는 함축된 언급이다.⁷⁵⁾

70) Ibid., 333.

71)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0.

72) Y. Yadin, “Beer-sheba: the High Place Destroyed by King Josiah”, *BASOR* 222 (1976), 5-17.

73) W. B. Barrick,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77.

74)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0; 참조, 임미영,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으로 읽는 열왕기하 2:23-24”, 「성경원문연구」 45 (2019), 30-49.

75)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2.

열왕기하 23:8에서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산당의 제사장들’(כהני הבמות)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9절이다. כהני הבמות은 구약성경에서 여섯 번만 나타난다. 이 표현은 열왕기하 23:9, 20 이외에 여로보암 본문(왕상 12:32; 13:2, 33)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선언하는 구절(왕하 17:32)에 나타난다. 학자들은 여로보암과 사마리아 멸망과 관련된 이 표현들은 포로 이후에 이 본문에 편집적으로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⁷⁶⁾ 특히 열왕기하 17:32에 나타나는 יהיה 동사와 동사의 분사형이 결합한 형태는 전형적인 후대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포로 이후의 편집의 특징을 보여준다.⁷⁷⁾

‘야훼의 제단’(מזבח יהוה)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43번 나타난다.⁷⁸⁾ 이 표현은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에도 빈번히 나타난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노래와 신명기 16:21 같은 몇 개의 법전 본문에 나타난다. 이 표현은 사사기를 제외한 신명기 역사서 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열왕기하 23:9에 마지막으로 나타난다(수 9:27; 22:19, 28, 29; 삼상 2:28; 33; 왕상 8:22, 31, 54; 18:30; 19:10, 14; 왕하 18:22; 23:9).⁷⁹⁾ 여호수아 22:19, 28, 29는 실로와 길갈 사이의 지역적 갈등을 반영하는 초기 전승을 수정한 제사장적 개정(priestly revision)으로 보인다.⁸⁰⁾ 사무엘상 2장의 이 표현과 관련된 본문은 솔로몬 아래에서의 사독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독계제사장 그룹의 편집으로 보인다.⁸¹⁾ 탈스트라(E. Talstra)는 이 중에서 열왕기상 8:22를 Dtr1로, 31절을 신명기 사가 이전의 자료층으로, 54절을 포로 이후의 신명기 사가 편집층으로 구분한다.⁸²⁾ 이를 통해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 다양한 시대의 신명기적 편집의 흔적을 반영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⁸³⁾

76) Ibid., 243, 274; G. N. Knoppers, *Two Nations under Go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f Solomon and the Dual Monarchies. Vol. 2: The Reign of Jeroboam, the Fall of Israel, and the Reign of Josiah*, HSM 53 (Atlanta: Scholars Press, 1994), 55; 참조. 이상원, “히스기야의 산당 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 히브리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 『성경원문연구』 39 (2016), 42-61.

77)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94, 243.

78) 이는 יהוה를 언급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를 포함한 것이다. Ibid., 243.

79) Ibid., 243-244.

80) J. Gray, *I & II Kings: A Commentary*, 52.

81) Ott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P. R. Ackroyd,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65), 40.

82) E. Talstra, *Solomon's Prayer: Synchrony and Diachrony in the Composition of I Kings 8, 14-61*, CBET 3 (Kampen: Kok Pharos, 1993, translation of his dissertation: “Het gebed van Salomo: Synchronie en Diachronie in de kompositie van I Kon. 8, 14-61”, Amsterdam: VU Uitgeverij, 1987), 174-281;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3-244.

슈피커만은 열왕기하 23:9를 신명기 18장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DtrN 보다는 훨씬 후대의 마지막 신명기 사가의 편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⁸⁴⁾

4.2. 9b절: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지 않는다면’(כִּי אִם-אָכְלוּ מִצֹּת בְּתוֹךְ אַחֵיהֶם)

כִּי אִם을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역접의 의미로 번역한다.⁸⁵⁾ 『개역개정』에서는 “다만”으로, 『공동개정』과 『새번역』, KJV, RSV, JPS에서는 ‘그러나’의 의미로 번역한다. 그러나 바릭은 최근에 열왕기하 23:9의 כִּי אִם이 역접의 ‘그러나’의 의미가 있다는 전통적인 이해는 구문론적인 이유에서 지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⁸⁶⁾ כִּי אִם과의 조화 속에서 עָלָה 동사의 미완료 시제와 אָכַל 동사의 완료 시제를 가진 이 구절의 문법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낳을 수 있다.⁸⁷⁾ 이 구절에서 현재/미래 시제나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형태와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완료형 동사가 כִּי אִם을 사이에 두고 사용된 구문은 전통적 방식의 읽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⁸⁸⁾ כִּי אִם과 동사 구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134개의 용례 중에 전통적인 방식대로 이 표현을 ‘그러나’의 의미로 읽으려면 עָלָה와 אָכַל의 시제가 일치해야 한다.⁸⁹⁾ 따라서 이 구절처럼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읽기가 요구된다.

창세기 32:26b[27b](כִּי אִם-בְּרַכְתָּנִי)에 비슷한 예가 나타난다. כִּי אִם의 앞부분에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가 나타나고 뒷부분에는 완료 형태가 나타난다. 이 구절에서 כִּי אִם은 문맥상 앞의 לֹא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unless)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unless)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가 된다. 레위

83)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4.

84) H. Spieckermann,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98.

85) LXX에서는 이를 ‘왜냐하면’(ὅτι)으로 번역한다.

86) W. B. Barrick,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190-192.

87) Ibid.

88) D. L. Washburn, “Perspective and Purpose: Understanding the Josiah Story”, *Trinity Journal* 12 (1991), 70.

89) W. B. Barrick,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190; S. M. Kang, “The Authentic Sermon of Jeremiah in Jeremiah 7:1-20”,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156.

기 22:6b(בשרו במים)도 마찬가지다. 이를 번역하면 ‘만약 그가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unless)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가 된다.⁹⁰⁾ 이와 비슷한 예가 룻기 3:18; 에스더 2:14; 이사야 55:10-11; 65:6b; 아모스 3:7에도 나타난다.⁹¹⁾

따라서 열왕기상 23:9를 번역하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지 않는다면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한다.’가 된다.⁹²⁾ 열왕기하 23:9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 신명기 18:6-8을 읽으면 부조화가 해결된다: 열왕기하 23:9의 산당 제사장들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의 형제들과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조건으로 억제될 때만 예루살렘의 야훼 제단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제단 특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עלה 동사의 미완료 시제와 אכל 동사의 완료 시제를 고려해 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의 형제들인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한 번’ 먹으면 예루살렘의 제단에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특권을 보장받는다.⁹³⁾ 이렇게 보면 열왕기하 23:9는 신명기 18:6-8을 적용하는 후대의 신명기적 편집 본문이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규정’(אכלו מצות)은 레위기 6:9와 10:12와 연결된다.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בתוך אחיהם)라는 표현은 민수기 27:7; 여호수아 17:4; 열왕기하 9:2; 욥기 42:15; 예레미야 41:8에도 나타난다. 제사장들을 ‘그들의 형제들’(אחיהם)이라 칭하는 예는 주로 포로 이후의 본문에 나타난다(대상 15: 11-12; 16:39; 24:31; 대하 5:12; 29:15, 34; 31:15; 35:15; 에 3:2, 8, 9; 6:20; 8:24; 느 3:1; 13:13).⁹⁴⁾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열왕기하 23:9ab는 포로 이후의 신명기적 편집 본문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열왕기하 23:8-9는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는

90) W. B. Barrick,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190-191.

91) Ibid., 191.

92) Ibid., 192.

93) Ibid., 192-193.

94) E. Eynikel,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5.

요시야 시대에 진행된 신명기적 제의 중앙화 보도에서 시작되어 포로기와 포로 이후의 유다 공동체의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지속해서 확장된 본문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신명기 법전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신명기적 편집이 요시야 시대에서 포로기를 걸쳐 포로 이후까지 반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열왕기하 23:8aα는 신명기의 중앙화 요구에 충실한 요시야 시대의 신명기적 편집 본문이다. 8aβγ절의 הכהנים אשר קטרו־שמה הכהנים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의 세 본문(7:30-8:3; 19:1-13; 32:29b-35)과 신명기 역사서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의 결합으로 포로기의 신명기적인 편집자가 지방 산당들의 철저한 제거를 강조하기 위해 편집적으로 첨가한 어구로 보인다. 8aδ절의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8bα절의 베카탈(w^oqatal) 형태와 השערים과 8bβ절의 이중수식 어구는 포로 이후의 편집 본문임을 짐작하게 한다. 8bα절의 השערים은 구약 본문과 주변세계의 언어와 문화의 도움으로 ‘털투성이의 폭풍우 신’으로 번역할 수 있다.

9a절의 יהוה מזבח ואל-מזבח과 9b절의 יהוה מזבח가 결합한 형태와 9b절의 역대기 역사서에 주로 나타나는 ‘그들의 형제들’(אחיהם)이라는 표현은 이 구절이 포로 이후의 편집 본문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9b절의 כי אם을 중심으로 한 עלה의 미완료 시제와 אכל의 완료 시제 구문에 לא가 결합한 형태는 אם כי을 ‘-하지 않으면’(unless)의 의미로 번역하도록 한다. 이 구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신명기와 이 본문이 단절된다는 학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주며, 이 구절이 신명기 18:6-8의 적용을 강조하는 포로 이후의 신명기적 편집 본문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 결과의 도움으로 이 두 구절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번역할 수 있다.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을 데려왔고,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제사장들이 불법적으로 제사하던 산당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고, 성문 왼쪽에 있는 성주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에 있는 털투성이의 폭풍우 신의 산당을 헐었다. (왕하 23:8)

산당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한다. (왕하 23:9)

이 연구는 본문의 번역은 본문에 나타나는 언어와 다양한 표현에 대한 사전적, 구문론적 연구뿐 아니라 본문의 이면에 나타나는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제어>(Keywords)

요시야, 개혁, 산당, 중앙화, 신명기적 편집.

Josiah, Reform, High Places, Centralization, Deuteronomic Redaction.

(투고 일자: 2020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이상원, “히스기야의 산당제거(왕하 18:4)와 여로보암의 죄(왕상 12:26-32) – 히브리 성서(MT)와 우리말 번역 성서의 비교 –”, 「성경원문연구」 39 (2016), 42-61.
- 이은우, “열왕기하 23장 10절의 역사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1:5 (2019), 37-59.
- 이은우, “요시야의 성전 정화와 예레미야”, 「구약논단」 62 (2016), 70-101.
- 임미영,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으로 읽는 열왕기하 2:23-24”, 「성경원문연구」 45 (2019), 30-49.
- Anderson, G. W., *The History and Religion of Israel*, NCB OT 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Barrick, W. B., *The King and the Cemeteries: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Josiah's Reform*, VTSup. 88, Leiden: Brill, 2002.
- Benzinger, I., *Die Bücher der Könige*, Kurzer Hand-Commentar zum Alten Testament 9, Freiburg, Leipzig and Tübingen: Mohr Siebeck, 1899.
- Böhmer, J., “Wo lag Ramath-Gilead?”, *ZAW* 29 (1909), 129-134.
- Brongers, H. A., *II Koningen*, POT, Nijkerk: Callenbach, 1970.
- Duhm, H., *Die bösen Geister im Alten Testament*, Tübingen: J. C. B. Mohr, 1904.
- Eissfeldt, O.,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P. R. Ackroyd, trans., New York: Harper & Row, 1965.
- Eynikel, E., *The Reform of King Josiah and the Composi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Leiden, New York, Köln: Brill, 1996.
- Gray, J., *I & II Kings: A Commentary*, OTL, 2nd ed., London: SCM Press, 1970.
- Gressmann, H., “Josia und das Deuteronomium”, *ZAW* 42 (1924), 323.
- Hardmeier, C., “König Joschija in der Klimax des DtrG (2Reg 22f.) und das vordtr Dokument einer Kulturreform am Residenzort”, R. Lux, ed., *Erzählte Geschichte: Beiträge zur narrativen Kultur im alten Israel*, Biblisch-Theologische Studien 4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81-145.
- Hoffmann, H. D., *Reform und Reformen: Untersuchungen zu einem Grundthema der Deuteronomistischen Geshichtsschreibung*, 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66, Zürich: Theol. Verl., 1980.
- Hölscher, G., “Komposition und Ursprung des Deuteronomium”, *ZAW* 40 (1922), 161-255.
- Hollenstein, H., “Literarkritische Erwägungen zum Bericht über die

- Reformmassnahmen Josiah 2 Kön. XXIII 4ff', *VT* 27 (1977), 321-336.
- Jones, G. H., *1 and 2 Kings*, 2 vols.,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4.
- Kang, S. M., "The Authentic Sermon of Jeremiah in Jeremiah 7:1-20", M.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Eisenbrauns, 1996, 147-162.
- Knoppers, G. N., *Two Nations under Go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of Solomon and the Dual Monarchies. Vol. 2: The Reign of Jeroboam, the Fall of Israel, and the Reign of Josiah*, HSM 53, Atlanta: Scholars Press, 1994.
- Lohfink, N. F., "Die Sicherung der Wirksamkeit des Gotteswortes durch das Prinzip der Schriftlichkeit der Tora und durch das Prinzip der Gewaltenteilung nach den Ämtergesetzen des Buches Deuteronomium (Dt 16,18-18,22)", H. Wolter, ed., *Testimonium Veritati: philosophische und theologische Studien zu kirchlichen Fragen der Gegenwart*, FTS 7, Frankfurt am Main: Josef Knecht, 143-155; reprinted in idem, *Studien Zum Deuteronomium und zur 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I*, SBAB, 8; Stuttgart: Katolisches Bibelwerk, 1990, 305-323.
- Lohfink, N. F., *Great Themes from the Old Testament*, R. Walls, trans., Chicago: Franciscan Herald, 1982.
- Long, B. O., *2 Kings*, FOTL X, Grand Rapids: Eerdmans, 1991.
- Nelson, R. D.,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8, Sheffield: JSOT Press, 1981.
- Nurmela, R., *The Levites: Their Emergence as a Second-Class Priesthood*, South Florida Studies in the History of Judaism 193, Atlanta: Scholars Press, 1998.
- O'Brien, M. A.,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Freiburg, Switzerland: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Oestreicher, T., *Das Deuteronomische Grundgesetz*, BfChTh 27:4, Gütersloh, 1923.
- Preuss, H. D., *Deuteronomium*, EdF 164,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2.
- Preuss, H. D.,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ThR* 58 (1993) 246-250.
- Šanda, A., *Die Bücher der Könige. 2. Halbband. Das Zweite Buch der Könige*, Exegetisches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9, Münster: Aschendorff, 1912.
- Schoors, A., *Jesaja: uit de grondtekst vertaald en uitgelegd*, BOT, Roermond: J. J.

Romen & Zonen, 1972.

Snaith, N. H., "The Meaning of שְׁעָרַיִם", *VT* 25 (1975), 115-118.

Spieckermann, H., *Juda unter Assur in der Sargonidenzeit*, Forschungen zur Religion und Literatur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Stade, B. and F. Schwally, *The Book of Kings: 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Text, The Sacred Books of the Old Testament* 9, Leipzig: J. C. Hinrichs, 1904.

Talstra, E., *Solomon's Prayer: Synchrony and Diachrony in the Composition of I Kings 8, 14-61*, CBET 3, Kampen: Kok Pharos, 1993, translation of his dissertation: "Het gebed van Salomo: Synchronie en Diachronie in de compositie van I Kon. 8, 14-61", Amsterdam: VU Uitgeverij, 1987.

Von Rad, G.,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 W. T. Dicken, trans., New York: McGraw-Hill, 1966.

Washburn, D. L., "Perspective and Purpose: Understanding the Josiah Story", *Trinity Journal* 12 (1991), 59-78.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J. S. Black and A. Menzies, trans., Edinburgh: A. & C. Black, 1885.

Würthwein, E., "Die Josianische Reform und das Deuteronomium", *ZTK* 73 (1976), 395-423.

Yadin, Y., "Beer-sheba: the High Place Destroyed by King Josiah", *BASOR* 222 (1976), 5-17.

<Abstract>

Research on the Redaction History of 2 Kings 23:8-9 and a Suggestion for New Translation

Een Woo Le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 Kings 23:8-9 reflects the peculiarity of King Josiah's reform intensively around the themes of elimination of high places and cult centralization.

In this study, the writer traces the redactional history of 2 Kings 23:8-9 through etymological, lexical, and exegetic analysis, and tries to suggest a new translation to solv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is text and the law code of Deuteronomy.

Through this study, the writer reveals that the basic layer of this passage is 2 Kings 23:8a α (ויבא את־כל־הכהנים מערי יהודה) which is related with cult centralization. This is the Deuteronomic redactional layer in King Josiah's reign. To this basic layer, v. 8a $\beta\gamma$ (ויטמא את־הבמות אשר קטרו־שמה הכהנים) was added. This exilic Deuteronomic redaction emphasized the defilement of local high places where the priests had offered sacrifices and which were rebuilt in exilic period. The final redactional insertion in this passage is v. 8a δ , v. 8b $\alpha\beta$, v. 9ab, which are the post-exilic Deuteronomic redactional layer. The expression *from Geba to Beer-sheba* in v. 8a δ , the w^cqatal form of נתן and השערים in 8b α , עלה אל־מזבח, כהני הבמות, מזבח יהוה, in 9a and אחיהם in 9b leads us to assume v. 9 as post-exilic Deuteronomic redaction.

The writer suggests to translate השערים in v. 8b α into *hirsute rainstorm god* and אם כי in v. 9b into *unless*, which solves the discordance between this text and the Deuteronomic code.